



팜파스그라스의 유희 31일 서귀포시 소재 휴애리자연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아름답게 피어난 팜파스그라스를 카메라에 담고 있다.

이상국기자

초강력 태풍 '힌남노' 제주로 향하나

2일 오전 서진에서 돌연 북진으로 방향 틀듯
한·중·일 모두 가능성... 기압골에 따라 결정

태풍 강도 중 가장 강한 '초강력'으로 분류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태풍 힌남노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1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1km의 속도로 서남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 915hPa, 최대풍속 초속 55m, 강풍반경 250km의 '초강력'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태풍 힌남노는 9월 2일 오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530km까지 도달한 뒤 돌연 제주가 있는 방향으로 '북진' 하겠다. 현재까지 확인된 예상 경로는 9월 5일 오후 3시 서귀포 남서쪽 약 370km 부근 해상인데, 이 때 세력도 초강력보다 한 단계 낮은 '매우 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9월 1일 오전 제12호 태

풍 '무이파'로 발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23호 열대저압부가 태풍 힌남노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돼 이동 경로와 세력 추이도 관심이 있다.

현재까지는 힌남노의 이동 경로는 다양하다. 중국과 대만, 우리나라, 일본으로 갈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어서다.

한편 제주에는 태풍 힌남노가 올려보낸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가 만나 형성된 비구름대로 인해 9월 1일부터 2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다. 특히 2일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일까지 예상된 강수량은 50~100mm(많은 곳 150mm 이상)다. 바람도 9월 1일 오후부터 초속 9~14m,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미래비전' 6년만에 폐기 처분

새 패러다임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설정
지난해 확정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수정
도, 도의회 동의 거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 재설정이 이뤄진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자치분권 확대와 지속가능한 제주로의 전환을 기조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재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인 '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제주' 실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설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도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로 청정자연이 훼손되고 있고 초고속 성장에 따른 각종 부작용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은 현재 제주의 위기를 만든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인위적인 개발과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을 던져버리고 미래 경쟁력인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는 지속 가능한 '그린도정' 구현에 중심가치를 둘 예정이다.

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설정 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안에는 새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중심으로 한 법안 명칭, 목적, 정의 등을 담을 예정이며, 제주도의회 의회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과 제주미래비전 재정립에 따른 조례 재정비도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31일 확정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4대 목표·8대 추진전략·120개 전략별 사업·18개 핵심 사업이 담겨 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120개 전략별 사업에 10조 5969억 원, 18개 핵심사업에 9조 8196억 원 등 총 20조 41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제주미래비전은 6년만에 다시 수립된다. 제주도는 운영비 16억 9200만 원을 들여 지난 2016년 2월 '공존'과 '정정'을 핵심 가치로 내건 '제주미래비전'을 수립했다. 도는 6개 부문별 추진 과제를 연차별로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담았다.

제주도는 제주미래 100년 청사진을 수립한다면서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까지 운영했으나 제주미래비전이 수립 6년만에 폐기처분 위기에 처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국제

자유도시를 제주국제도시로 변경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부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설정을 위한 도민공감대 형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 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내년 4월에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경기도 북구는 2024년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고 새만금 3개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단체연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행안부에서 이들 지자체의 지위와 특례, 권한 이양 범위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신규 796
잠정 집계 31일 <17시 기준> 누적 32만 1778

도내 최대 규모 수망태양광 '탄력'

어제 환경영향평가 심의서 '조건부 동의'

태양광발전시설 중 도내 최대 규모인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2022년도 제6차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이원주식회사가 제출한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을 심의,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은 제이원주식회사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233만 7352㎡ 부지에 1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139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다.

이 설비 용량은 도내 태양광발전

시설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준공될 경우 도내 태양광발전시설 용량은 총 650MW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횡수 증가 등 과잉전력 문제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심의를 앞두고 도내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환경훼손 논란도 제기됐다.

제주녹색당은 이날 심의에 앞서 "이 사업 계획은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현저한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다"며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수망태양광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2
FOR PEACE & PROSPERITY

갈등을 넘어 평화로: 공존과 협력

Beyond Conflict, Towards Peace: Coexistence and Cooperation

2022. 09. 14.(수) ~ 16.(금)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포럼 홈페이지



제주포럼 유튜브








